

# 제국의 유지와 방어: 영국의 군사력과 군사정책, 1880~1945년\*

조 용 욱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 I. 머리말

세계화(globalization)는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만큼이나 그에 대한 찬반 또한 매우 뜨거운 핵심 화두 중의 하나이다.<sup>1)</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화의 역사적 선례를 산업화된 서양의 국민국가가 아닌 그 이전의 비서양세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세계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고대에서 현재까지 세계화는 적어도 몇 가지 유형을 통해 표현돼왔다는 사실이다.<sup>2)</sup> 세계화의 구체적 선례와 유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19세기말과 20세기초 사상 최대의 제국을 이름으로써 진정한 ‘세계적 강국’(global power)이 된 영국의 경우는 세계화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sup>3)</sup>

영제국은 많은 학구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까지 연구에서 상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044-A00001)

- 1) A. G. Hopkins, "Globalization - An Agenda for Historians" in idem (ed.), *Globalization in World History* (New York and London: Norton, 2002), p. 1.
- 2) *Ibid.*, p. 2. 이 책의 기고자들은 크게 네 유형의 세계화 - 1600년 이전 이슬람, 아프리카, 중국 등에서 진행된 ‘古’(archaic) 세계화, 1600-1880년의 ‘原’(proto-) 세계화, 1800-1950년의 ‘근대적’(modern) 세계화, 1950년 이래의 ‘식민시대 이후의’(postcolonial) 세계화 - 를 제시하고 있다; *ibid.*, pp. 2-10.
- 3) Niall Ferguson, *Empire: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and the Lessons for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04), pp. xix-xxvi.

대적으로 간과되거나 옳게 부각되지 못한 측면들도 적지 않은데, 그 중 하나가 제국의 유지와 방어를 위해 영국이 동원하고 발전시킨 군사력과 군사정책의 본질이다. 근대 영국의 국가구조와 속성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sup>4)</sup>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치적 입장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영국의 전반적 쇠퇴<sup>5)</sup>라는 틀 속에서 피상적 진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20세기 전반을 풍미한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도전이나 이차대전 이후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기술 중심의 미국 군사전략에 가려져 영국의 군사력과 전략은 비전 문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간주됐을 뿐 아니라,<sup>6)</sup> 19세기 중엽에서 시작돼 1930년대에 절정에 이른 '유화정책의 전통' 하에서 영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대결보다는 타협을 추구하고 때로는 평화주의적이기도 했었다고 지적됐다.<sup>7)</sup>

군부와 군사정책이 영국 국가구조 내에서 차지한 비중이나 영국군대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역사적 평가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 
- 4) Andrew Gamble, *Britain in Decline* (London: Macmillan, 1981); Colin Leys, *Politics in Britain: An Introduction*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1983); David Coates, *The Context of British Politics* (London: Hutchinson, 1984); David Coates et al., *A Socialist Anatomy of Britain* (London: Polity Press, 1985); Tom Nairn, *The Enchanted Glass: Britain and Its Monarchy* (London: Radius, 1988); Brian Harrison, *The Transformation of British Politics, 1860~199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Richard Price, *British Society 1680~18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 5) '영국의 쇠퇴'에 관한 문헌은 너무 방대해 소개하기가 힘들다. 논쟁의 복잡한 갈래와 주요 쟁점에 관한 이해와 정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David Coates and John Hillard (eds.), *The Economic Decline of Modern Britain: The Debate between Left and Right* (Brighton: Wheatsheaf Books, 1986); W. D. Rubinstein, *Capitalism, Culture and Decline, 1750-1990*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3); Michael Sanderson, *Education and Economic Decline in Britain 1870 to the 1990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Raymond E. Dumett (ed.),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Imperialism* (London: Longman, 1999).
- 6) Chris Freeman, *Technolog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London: Pinter Publishers, 1987), pp. 123-125; M. Shaw, *The Dialectics of War*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p. 2.
- 7) Paul Kennedy,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 (London: Allen & Unwin, 1983), pp. 13-39, 215-217.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 특히 독일의 급속한 군사대국화가 진행되던 때부터 나왔었고, 20세기 두 대전을 치르면서 강화되어 역사가들 사이에 일종의 정설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앤더슨(Perry Anderson)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의 陸軍部(War Office)나 海軍部(Admiralty)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이끄는' 재무부의 영향 하에서 수동적 지위에 만족해야 했고, 혁명이나 외침을 겪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군대는 단순히 국내의 질서유지와 제국의 감시를 담당하도록 편성되고 운영됐다. 그 결과, 영국 군부는 19세기말 독일의 급격한 군비증강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20세기 총력전의 시대에 와서도 산업, 경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역동적으로 상호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sup>8)</sup> 앤더슨의 이러한 진단은 바넷(Correlli Barnett)의 연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차대전 중의 영국 전시경제와 전쟁수행에 관해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 바넷에 따르면, 영국은 그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불행히도 경제 운용에서 실패했으며 국가구조를 쇠신하기는커녕 값비싼 복지개혁을 본격화함으로써 향후 결정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sup>9)</sup> 이러한 결론은 전쟁 중, 특히 이차대전에서의 성공적 전쟁수행과 전시경제를 지적한 연구들<sup>10)</sup>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영국군대와 군사정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됐으며, 과학과 기술의 응용과 발전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때로는 선도하기도 했다. 비록 육군의 규모와 편제에서 독일을

8) Perry Anderson, "The Figures of Descent", *New Left Review*, No. 161 (January-February 1987), pp. 27-28.

9) Correlli Barnett, *The Audit of War: The Illusion and Reality of Britain as a Great Nation* (London: Macmillan, 1986).

10) 예를 들어, Anthony Barnett, "Iron Britannia", *New Left Review*, No.134 (July-August 1982); Michael Barratt Brown, "Away With All the Great Arches: Anderson's History of British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167 (January-February 1988), pp. 41-42 등이 이러한 연구에 속한다.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뒤지기는 했지만, 일차대전 발발 시에 영국은 가장 큰 잠수함편대와 비행편대를 갖춘 최고, 최대의 해군을 보유했으며,<sup>11)</sup> 일차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탱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은 수의 항공기를 갖춘 최대의 공군을 갖게 됐으며, 전함 70척을 주축으로 한 영국 해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일의 함대를 운용하고 있었다.<sup>12)</sup>

19세기말은 영제국의 역사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 시기이다. 한편으로 1870년대 이후 영국은 제국주의 경쟁에서 이른바 ‘사자의 몫’을 확보함으로써 외형상 최대 제국의 면모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우위에 대한 도전이 격화되면서 제국의 유지와 방어에 대해 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독일 주도 하에 1880년대부터 진행된 동맹체계의 진화에 대해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서 영국이 견지하던 ‘의도적 무관심과 고립’은 20세기에 들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고 결국 영일동맹(1902년)과 삼국협상(1907년)으로 귀결됐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대응과 더불어 후발 산업국들의 급속한 군비확충에 대해 영국은 자신의 군비에 대한 점검과 강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1889년 해군법(Naval Defence Act)이었다. 이 법에서 표명된 이른바 ‘이국표준’(two-power standard)은 영국이 보유하는 주력함의 수는 그 다음의 두 국가들(당시 프랑스와 러시아)이 가진 전함들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이것은 1909년에 완화됐지만 일차대전 발발 이전까지 국제적 해군비 경쟁과 군축협상에서 영국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sup>13)</sup> 군사력의 이러한 양적 우위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동맹체계와 집단안보에 대한 태도변화와 함께 많이 지적돼왔지만, 영국

11) Larry H. Addington, *Patterns of War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Bloomington & Indianapolis, ID: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155.

12) Paul Kennedy,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 p. 199. 영국 본국이 보유한 육군의 규모는 독일이나 러시아보다 작았지만, 일차대전 말 영제국 전체에서 동원된 모든 병력은 8,500,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ibid.*, p. 199.

13) *Ibid.*, p. 168.

이 이와 동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군비의 질적, 기술적 발전과 혁신은 그렇지 못했다.

역사상 첫 산업화를 이룬 영국은 생산의 산업화뿐만 아니라 ‘군비와 전쟁의 산업화’를 선도했고 이른바 ‘근대적 군산복합체’의 대두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물론 잘 알려진 것처럼, 프로이센, 프랑스 등과 비교해서, 특히 1870년대 이전에는, 영국이 최신 과학기술의 군사적 이용과 적용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낙후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본격화된 해군의 증강과 혁신에서 영국은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비확장을 꾸준히 주도했으며 일차대전 이후에는 똑같은 정책을 공군에 적용하여 추진했다. 그 결과, 군수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관계가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으며, 과학과 기술의 군사적 이용이 대규모 전문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민간 군수산업과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급격히 늘었을 뿐 아니라 둘 사이의 경계도 한층 더 복잡하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었다.<sup>14)</sup> 이차대전에 이르러 영국의 군사적 기술우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특히 미국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 이후 주도권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관성’에 의해 영국은 무모할 정도로 최신기술 위주의 군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군비확장과 더불어 영국은 군사전략에서도 결코 보수적이거나 낙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이 영국은 적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시설과 민간인도 아울러 공격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군사전략개념을 발전시켰는데,<sup>15)</sup> 이러한 전략 - ‘전략적 폭격’(strategic bombing)은 곧 미국에 의해 적극 수용됐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엽부터 현대전의 보편적 전략개념이 됐다. 새로운 군사전략을 선

14) William H.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Technology, Armed Forces, and Society since A.D. 100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7-8장.

15) 이러한 측면에 관해서는 특히 Malcolm Cooper, *The Birth of Independent Air Power* (London: Allen & Unwin, 1986); B. Smith, *British Air Strategy between the W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David Edgerton, *England and the Aeroplane: An Essay on a Militant and Technological Nation* (London: Macmillan, 1991) 을 참조하라.

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첨단, 최강의 군사력을 운용한 영국의 이러한 모습이 흔히 언급되는 프로이센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경향과 과연 얼마나 많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영국의 전략적 특징은 영국 엘리트가 그들 국가의 속성과 제국방어에 대해 갖고 있던 기본 인식과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이러한 인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첨단기술 위주의 군비확장과 새로운 군사전략의 개발을 두 시기 - 1880년대와 일차대전 사이의 해군과 일차대전에서 이차대전까지의 공군의 경우 - 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한때 최고, 최대의 세계적 강국으로서 영국이 보유한 군사력의 실체와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제국의 유지와 방어에 대한 기본 인식

영국이 추구했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정책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가진 국가관과 국익 보호방식에 대한 견해는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근대영국의 엘리트에게 있어 영국은 무엇보다 산업과 무역에 기초한 경제적 강국이어야 했다. 이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지만, 과도한 군비지출은 경제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것으로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대규모 상비군을 전제 왕권의 징표로 간주하는 영국인의 전통적 인식과 더불어 영국이 처한 지리적, 물리적 환경과 조건 - 작은 섬나라로서 인구와 자원이 다른 강국들보다 부족하다는 사실 - 도 영국 엘리트의 전략적 사고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영국은 어차피 독일이나 러시아처럼 대규모 군대, 특히 대규모 육군을 양성해 배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를 대거 전장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공장에서 더 나은 상품과 무기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타국의 산업과 군대를 견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sup>16)</sup> 비교적 저렴한 군비로써 긴 항로와 넓은 교역권을 통제하려는

이 의도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 해군을 주축으로 한 영국의 식민팽창과 비교적 잘 맞아 떨어졌다. 대서양으로 향하는 입구에 자리잡은 지정학적 이점과 17세기말의 재정혁신으로 인한 성공적 전비조달에 힘입어 영국의 해외팽창은 18세기를 통해, 미국독립전쟁을 제외하면, 성공담의 연속이었다. 영국은 “한편으로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조절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해상지배를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추구할 수 있었다.<sup>17)</sup> 특히 1815년 이후 1860년대까지 산업과 해외팽창에서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례없는 전략적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sup>18)</sup>

그러나 1860년대를 고비로 영국의 제국건설은 시련을 맞게 됐다. 어떤 역사가들에 따르면, 제조업과 무역에서 신생 산업국들의 도전으로 영국의 ‘상대적’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영국 외교에서 유희정책이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적 사고’뿐만 아니라 군사대결이 영국경제의 근간인 국제무역과 금융질서에 해롭다는 고려도 동시에 작용했을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대응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영국의 엘리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첨단기술에 기초한 군비개발과 새로운 군사전략의 발전을 통해 자국 경제의 기초를 흔들지 않고서도 커지는 안보상의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차대전 이전의 독일해군 증강과 일차대전 발발 이후의 독일공군의 위협에 대해 영국은 최첨단 기술을 기초로 한 해군과 공군의 유지뿐만 아니라 전략적 폭격과 같은 새로운 전술도 주도적으로 발전시켰다.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인식됐다. 또한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

16) David Edgerton, “Liberal Militarism and the British State”, *New Left Review*, No. 185 (January-February 1991), p. 148; Paul Kennedy, *Strategy and Diplomacy*, p. 38.

17)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Vintage Books, 1989), p. 98.

18) 이 시기 “영국 해군의 일년 평균 예산은 약 800만 파운드로서 전 세계에 걸친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에 대한 보험금으로서의 괜찮은 가격”이었다; *ibid.*, pp. 90-91.

19) Paul Kennedy,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 pp. 38-39, 215-216.

급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군사분야에 관련된 주요 행정부서들 예를 들어, 재무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의 기능뿐만 아니라 벨푸어(A. J. Balfour), 홀데인(R. B. Haldane), 처칠(Winston Churchill)과 같은 주요 정책입안자들의 역할도 이러한 적극적 대응의 전개에 매우 중요했다. 오늘의 시각에서 돌이켜 보면, 물론 이러한 대응이 영국경제력의 한계를 궁극적으로는 넘어 설 수 없었고 또 새로운 강대국들의 대두로 이내 무색해져버렸지만, 역사적 사실과 유산으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III. 최고, 최대의 해군력-1880년대에서 일차대전까지

영국은 19세기 산업화를 선도했으나 ‘군사기술과 전쟁의 산업화’에서는 1880년대 초까지 그렇지 못했다. 흔히 지적되듯이, 크림전쟁(1854~56년)은 참전국 모두의 행정적, 군사적 취약점과 한계를 잘 드러내줌으로써 무기, 군제, 전략의 혁신과 발전을 촉발시켰다.<sup>20)</sup> 19세기 중엽부터 무기 개량-철제증기선, 총탄의 효율성 제고, 前裝총포(muzzle-loader)를 능가하는 後裝총포(breech-loader)의 개발-에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한발 앞서 나갔고, 특히 보오전쟁(1866년)과 보불전쟁(1871년) 이후 프로이센과 독일의 군사제도(참모제, 징집제, 철도의 군사적 이용 등)는 다른 국가들이 앞다투어 배우려는 본보기가 됐다.<sup>21)</sup> 이러한 경향에서 영국만이 유일한 예외였다.<sup>22)</sup>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미온적이고 둔감하던 영국을 크게 긴장시킨 것

20) William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p. 230.

21) *Ibid.*, pp. 242-256.

22) 예를 들어, 일차대전이 발발할 즈음, 영국을 제외한 주요 강국들은 단기 복무를 위해 징집된 다수 사병들과 장기 복무의 직업 장교들로 구성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David French, "Warfare and National Defence", in Martin Pugh (ed.), *A Companion to Modern European History, 1871~1945* (Oxford: Blackwell, 1997), p. 282.



은 다른 국가들, 특히 독일이 해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군을 증강시키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해군은 근대 초 이래 영국 국가안보의 핵심이었으며, 19세기 국제무역의 확대와 경쟁강화로 인해 영국의 해외시장과 수송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해군 증강은 영국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낳기에 충분했다.<sup>23)</sup>

1884년 「영국해군의 우위는 더 이상 없다」는 도발적 기사로 조성된 분위 속에서<sup>24)</sup> 본격화된 해군의 증강은 암스트롱(Armstrong), 빅커즈(Vickers) 등과 같은 대규모 민간군수업체와 정부, 특히 해군부 간의 높은 상호의존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낳았다.<sup>25)</sup> 최신 전함의 개발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은 국가와 사기업간의 협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특히 해군부는 기술발전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게됐다.<sup>26)</sup> 물론 해군부 내에서도 첨단무기를 강조하는 이 경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대규모 육군의 양성만이 독일과 같은 ‘야심만만한’ 국가를 저지할 효과적 수단이라는 반대론도 상당했다. 해군 내에서 ‘역사파’(historical school)로 불린 일군의 인사들은 조직력과 기술 그리고 공병장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웅적 지도력’을 중시하는 ‘넬슨 제독의 원칙’을 선호했다.<sup>27)</sup> 이

23) David Edgerton, "Liberal Militarism and the British State", p. 142.

24) 야심만만하고 패기에 찬 젊은 해군장교였던 피셔(John Fisher) 대위가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영리한 언론인 스테드(W. T. Stead)에게 흘렸고, 스테드는 1884년 9월 *Pall Mall Gazette*에 「해군에 관한 진실」("The Truth about the Navy")이라는 제목의 도발적인 글을 실었다. 그 이후 12월까지 이와 연관된 기사들이 계속 게재됐고 여론과 의회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William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p. 268. 이로 인해 피셔의 존재는 크게 부각됐고, 그는 1886년 해군군수 책임자로 임명됐으며 결국에는 제독으로 승진했고 해군부장관(1904~1910년)으로서 이 시기 영국해군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 됐다.

25) 1881~1890년 해군의 전체 무기구입비의 35.7%가 군수물자제조 사기업체들에게 지출됐는데, 이 비율은 1890~1900년에 46.1%, 그리고 1900~1910년에는 58.5%로 꾸준히 늘었다; Clive Trebilcock, "Spin-off in British Economic History: Armaments and Industry, 176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II (1969), p. 480.

26) William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pp. 273-274.

27)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Bernard Semmel, *Liberalism and Naval*

러한 해군 내부의 이견은 영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열띤 사회적 논쟁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이른바 ‘해군주의자들’(navalists)은 해군 중심의 전략이 갖는 경제적, 군사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육군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반면, 반대파들은 수병과 기계에만 제국 방어의 책임을 지우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상무 정신과 애국적 일체감이라고 강조했다.<sup>28)</sup> 궁극적으로 여론의 싸움에서 승리한 측은 첨단기술을 갖춘 해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고, 20세기 초 독일을 비롯해 모든 주요 국가들이 추구하던 대규모 육군의 양성은 영국의 군사전략에서는 뚜렷한 입지를 구축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영국은 독일과의 장차 싸움에서 해상봉쇄를 통해 독일경제를 붕괴시킨다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영국해군이 해상로를 확보함으로써 육상전을 치르는 동맹국들에게 필요한 군수물자를 제공한다는 전쟁계획을 수립했다.<sup>29)</sup> 근대에 들어와 무역로의 확보와 유지를 통해 세계적 강국으로 등장하고 군림하게 된 영국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는 1906년에 진수된 최신예 드레드노트(dreadnought)형 전함의 개발이었다. 당시 주요 첨단기술들의 결합체로서 함포사정거리와 정확도, 항속에서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전함의 출현은 독일을 비롯한 타 국가들의 기존 해군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만들었으며 일차대전 발발까지 국제 군비경쟁을 크게 심화시켰다.<sup>30)</sup> 이 전함은 영국의 경쟁국들, 무엇보다 독일로 하여금 이에 필적하는 전함의 설계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기존 건함 작업을 중지하게 만들었다.<sup>31)</sup> 이제 “군사기술이 영국(과 세계)의 공학적, 기술적 발전을 선도”하

---

*Strategy: Ideology, Interest, and Sea Power during the Pax Britannica* (London: Allen & Unwin, 1986); Paul Kennedy,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 pp. 111-160을 참조하라.

28) ‘해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버츠 경(Lord Roberts)의 전국군복무연맹(National Service League)이 주장하는 징집제도를 위한 운동을 지지했다; J. H. Grainger, *Patriotism: Britain 1900~1939*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chapter 14.

29) David French, *British Economic and Strategic Planning 1905~1915* (London: Allen & Unwin, 1982), p. 23.

30) David French, “Warfare and National Defence”, pp. 289-290.

게 됐을 뿐만 아니라,<sup>32)</sup> 이 비싼 전환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이 건조함으로써 영국에서는 해군비와 관련된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1884년, 1899년, 1914년의 육군비 지출은 각각 1610만 파운드, 2000만 파운드, 2830만 파운드였음에 반해, 해군비 지출은 1070만 파운드, 2410만 파운드, 4880만 파운드로 가파르게 늘었다.<sup>33)</sup> 또한 1897년에 해군과 해군관련 업체에 고용된 25만 명의 민간인들이 전체 남성노동인구의 2.5%를 차지했음에 반하여, 전체 해군예산이 1897년의 두 배로 증가된 1913년에는 이 비율이 16.7%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sup>34)</sup> 거대 군수업체들이 일련의 핵심기술분야들 - 강철, 비철금속, 화학공업, 전기기계, 통신, 광학, 터빈, 계산측정기 - 에서 발전을 주도하면서 이들 자체가 공공성을 띤 대규모 관료체제로 변모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들이 내리는 기술적, 재정적 결정이 공적인 중요성을 갖게 됐다. 국가이익과 사기업이익이 더욱 강하게 얽히게 됐고 양자간의 경계가 점점 더 불투명해졌다.<sup>35)</sup> 1880년대부터 대 군수업체들은 첨단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결

31) William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p. 277. 물론 영국이 이 전환을 처음 건조했을 당시에도 독일의 크루프(Krupp) 철강회사가 생산하는 갑판보다 이 전환의 갑판이 약하기 때문에 더 보강해야 한다는 내부적 이견이 있었으나, 드레드노트의 항속이 우월할 뿐 아니라 특히 함포의 사정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독일 전환의 포탄이 영국 전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무마됐었다. 또한 흔히 지적되듯이 일차대전의 가장 중요한 해전이었던 1916년 5월의 유틀란드 해전에서 영국 함대의 기능이 기대한 것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차대전 발발 이전까지 전환의 기술적 개발과 경쟁에서 영국이 선도했다는 사실이다.

32) Trebilcock, "Spin-off in British Economic History", pp. 474-480.

33) B. R. Mitchell, *Abstracts of British Stat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 397-398.

34) W. Ashworth, "Economic Aspects of Late Victorian Naval Administration",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II (1969), p. 492; Arthur Marder, *The Anatomy of British Sea Power: A History of British Naval Policy in the Pre-Dreadnought Era, 1880~1905* (New York: A. A. Knopf, 1940), pp. 25-37.

35) William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p. 292.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대 군수업체들이 독일과 프랑스의 군수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이윤의 극대화와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특허공유나 원자재우선공급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일차대전 중에 국익과 기업이익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의 문제를 첨예하게 야기하기도 했다; Clive Trebilcock, *The Vickers Brothers: Armaments and Enterprise, 1854~1914* (London: Europa, 1977); idem, "British Armaments and European Industrialization, 189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VI (1973), pp. 254-272.

정의 정치화'에서도 여타 산업분야들에 훨씬 앞서게 됐으며 “이들 군수 업체와 군부는 20세기의 뚜렷한 특징이 돼버린 두 과정, 즉 전쟁의 산업화와 경제의 정치화를 야기한 주체가 됐다.” 요컨대, 20세기초 “유럽 자유주의의 본거지에서 근대적 군산복합체가 빠르게 성숙하게 됐다.”<sup>36)</sup>

#### IV. 영국공군의 대두와 발전 - 일차대전에서 이차대전까지

일차대전이 끝난 뒤 제국의 해체를 맞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제국, 러시아와는 달리 영국은 승리를 통해 제국의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일차대전 후의 영토적 조정에 따라 영제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태평양지역에서 기존의 1300만 평방 마일에다 백만 평방 마일을 더 추가할 수 있었고, 이 광활한 제국 내에는 세계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 4억 5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역사상 이러한 규모의 제국은 아직까지는 없었다.<sup>37)</sup> 그러나 제국의 확장은 무엇보다 제국의 효율적 방어라는 문제를 더 첨예하게 만들었다. ‘총력전’으로 인해 전투의 범위가 크게 확장됨으로써 영국은 이제 “전 세계가 군사작전의 무대가 됐다”<sup>38)</sup>는 것을 자각하고 동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지적됐듯이, 이러한 걱정은 일차대전 이전에 이미 ‘해군주의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1911년에는 영국정부로 하여금 제국회의(Imperial Conference)를 열어 제국 구성원들에게 제국방어의 공동책임과 협조를 강조하게 만들었다.<sup>39)</sup> 또 이보다 더 일찍

36) William McNeill, *The Pursuit of Power*, pp. 294, 285.

37) Paul Kennedy,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 p. 199.

38) Roger Chickering, “Total War: The Use and Abuse of a Concept”, in Manfred F. Boemeke, Roger Chickering and Stig Foerster (eds.), *Anticipating Total War: The German and American Experiences, 1871~19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16.

1902년에는 정부 내에 제국방위위원회(Committee of Imperial Defence)가 설치돼 해군부와 육군부 간의 상호조정과 협력뿐만 아니라 이들 두 군사관련 부서와 외교·내무 정책간의 긴밀한 조율을 도모하려 했다. 수상인 벨푸어가(1902~1905년)가 만든 이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의외에도 중앙정부기구의 쇄신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벨푸어는 장교교육의 대대적 개혁을 포함한 해군 근대화를 강하게 지원한 것으로 유명했다. ‘해군주의자’이면서도 육군장관(1906~1912년)이었던 홀데인은 육군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여 잘 정비된 영국해외파견군(British Expeditionary Force)과 국방군(Territorial Army)을 성공적으로 창설했다.<sup>40)</sup> 벨푸어와 홀데인은 일차대전 직전의 이시기에 국방정책과 교육·과학정책을 상호 밀접히 관련시키고 접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41)</sup>

제국의 생존과 수호를 위한 전쟁이 터졌을 때, 무엇보다 영국 엘리트의 관심을 끈 것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요하는 공군력의 이용이었다. 비행물체를 이용한 공중의 지배는 광활한 제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는 영국 군사전략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차대전이 발발했을 때 공군력의 군사적 이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사실, 비행과 비행체에 대한 오랜 관심은 이미 18세기말에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1783년 프랑스의 한 체지업자 형제가 열기구(balloon)를 타고 비행에 성공한 이후 기술적 발전을 거듭한 결과 1890년대에는 최초의 비행선(airship)이 제조됐다. 열기구와 비행선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했지만, 이

39) 제국회의는 일차대전 발발 전까지 총 8차례 열렸으며 (1911, 1917~18, 1921, 1923, 1926, 1930, 1935, 1937년), 일차대전 중에도 1941년에 한번 열렸다. 이 회의들의 목적과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enedikt Stuchtey, “‘Not by Law but by Sentiment’ Great Britain and Imperial Defense, 1918~1939”, in Roger Chickering and Stig Foerster (eds.), *The Shadows of Total War: Europe,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1919~19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255-270.

40) 국방군(Territorial Army)은 영국 본토 내에 주둔하는 육군을 의미한다.

41) F. M. Turner, “Public Science in Britain, 1880~1919”, *Isis*, Vol. 71 (1980); Geoffrey Price, “Science, Idealism and Higher Education in England: Arnold, Green and Haldan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II (1986), pp. 5-16.

들 비행체의 이용은 전투가 아닌 정찰과 관측에 국한됐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항공기 비행에 성공한 이후 한동안 항공기의 군사적 이용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이것 역시 폭격보다는 정찰임무에 한정됐다.<sup>42)</sup>

일차대전 이전에 공중의 지배에 대한 영국 내의 관심은 홀데인이 대학에서 항공학을 본격적 연구분야로 출범시킴으로써 표출됐지만, 항공의 군사적 이용은 1911~1915년에 해군장관이었던 처칠이 해군 내에 비행단을 창설함으로써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된 뵈플루어와 홀데인도 1920년대와 1930년에 영국 공군력의 증강에 큰 역할을 했지만<sup>43)</sup> 가장 중요한 인물은 처칠이었다. 아래에서 지적되겠지만, 처칠은 전략적 폭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동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지상군을 공군으로 대체하는 등 영국 공군의 증강과 전략에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sup>44)</sup>

일차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해군은 세계 최대의 잠수함선단뿐만 아니라, 처칠의 주도에 힘입어, 비록 절대적 규모에서 커지는 않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크고 더 우수한 자체의 비행단(Royal Naval Air Service)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육군도 개별적으로 비행단(Royal Flying Corps)을 운용했다. 또한 개전 후 영국은 제일의 해군 강국으로서 자국의 함대에서 비행기를 발전시키고 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1918년 여름에는 마침내 전함 ‘아거스’(HMS Argus)를 완성했는데, 이것은 일차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항공모함의 원형이 됐다.<sup>45)</sup> 향

42) Martin van Creveld, *Technology and War from 2000 B. C. to the Present* (New York: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1991), pp. 183-185. 라이트 형제의 시도가 있기 바로 전에 랭글리(Samuel Langley)의 시험비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한 모든 정부지원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성급히 내려버렸고 항공기의 개발과 군사적 이용은 한동안 유럽에서 주도하게 됐다. 일차대전 이전에 항공기에 의한 폭격의 사례로는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침공할 때 아주 소규모로 행한 것을 꼽을 수 있다; *ibid.*, p. 185.

43) R. B. Haldane, *An Autobiography* (London: Hodder & Stoughton, 1929), p. 319ff.

44) Charles Townshend, *Britain's Civil Wars* (London: Faber and Faber, 1986), pp. 123-135.

45) Larry H. Addington, *The Patterns of War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p. 155.

공모함은 해군과 공군의 전략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후 현대 전쟁의 핵심 요소가 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차대전은 항공기의 군사적 이용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차대전 이전에는 정찰과 관측에 주로 이용됐던 비행체가 전쟁의 와중에서 적의 후방에 위치한 산업시설과 군사시설 그리고 민간인들을 괴멸시키려는 전략적 폭격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게 됐다. 전쟁 초기에 독일이 비행선(Zeppelin)을 이용해 런던을 공습한 사실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sup>46)</sup> 그러나 일차대전 중에 영국해군이 비행선이 아닌 비행기를 동원해 독일에 대한 전략적 폭격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영국은 전쟁 초기부터 폭격기를 동원한 전략적 폭격을 의도했지만 1916년 이전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 대신 다른 종류의 항공기를 이용해 영국은 독일의 항만과 비행선기지들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 1917년 여름에 단행된 독일의 영국에 대한 공습 때문에 비등해진 여론에 힘입어 독자적인 영국공군(Royal Air Force)이 창설됐다. 이것은 이미 해군과 육군에 각기 소속돼 있던 비행단들을 통합시켜 만들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별개 행정부서인 공군부(Air Ministry)도 설립됐다.<sup>47)</sup> 일차대전을 통해 교전국들은 공군력을 크게 증강시켰는데, 영국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했다. 1918년 11월 영국공군은 장교와 사병을 합쳐 약 30만의 병력을 갖게 됐는데, 이것은 4년 전의 무려 150배에 달하는 규모였고, 전쟁기간을 통해 모두 5만대에 달하는 각종 비행체를 구입, 사용했다.<sup>48)</sup> 일차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은 최대의 그리고 가장 우수한 공군을 보유하게 됐다. 이러한 우위는, 나치의 득세 이후 독일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차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흔들리지 않았다.<sup>49)</sup>

46) *Ibid.*, p. 152.

47) *Ibid.*, p. 154. 이렇게 됨으로써 영국에는 육군, 해군, 공군을 각기 전담하는 세 부서가 존재하게 됐고 이것들은 1964년에 이르러 하나로 통합돼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로 출범하게 됐다.

48) Martin van Creveld, *Technology and War from 2000 B. C. to the Present*, p. 188.

49) Larry H. Addington, *The Patterns of War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p. 187.

1918년 말 영국은 유일하게 독자적인 공군과 공군부를 가진 국가가 됐고 이 특징은 1920년대 말까지 지속됐다. 이보다 더 특기할 점은 영국공군의 주된 임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폭격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에 영국공군은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거센 해체의 폭풍을 견뎌내야 했다. 육군과 해군이 공군의 해체를 요구한 것은 공군력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저마다의 강력한 비행군단을 거느리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 공군은 해체의 요구에 대해 공군이 갖는 고유한 전략적 기능을 강조하며 맞섰는데, 1920년대 초 마침 불거진 중동지역의 통제에 관한 문제가 공군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게 됐다.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는 광활한 아프리카와는 달리, 중동은 인도를 기초로 한 영제국의 구도에서 긴요한 지정학적 축을 형성했고, 중동에서의 핵심은 이라크와 그 주변의 유전지대였다.<sup>50)</sup> 공군력의 사용은 이 지역처럼 인구가 조밀하지 않은 곳에서 비교적 값싸고 쉬운 통제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제국 방어와 통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처칠의 주장을 따라, 중동의 지상군은 폭격편대로 교체됐다.<sup>51)</sup>

처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영국 공군의 수뇌부는 중동에서의 공군력 이용이 갖는 이점을 정당화하고 구체화 시켰다. 이 당시 영국 공군의 전략 개념은 위협적인 상공선회비행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폭탄투하를 통한 끔찍한 파괴력의 과시으로써 반기를 드는 이 지역 전사들의 사기와 저항력을 꺾어버린다는 것이었다. “비전투원들뿐 아니라 무구한 민간인

50) John Darwin, “An Undeclared Empire: The British in the Middle East, 1918~39”,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27 (1999), p. 160; Daniel Silverfarb, *Britain's Informal Empire in the Middle East: A Case Study of Iraq, 1929~4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930년 식민부의 패스필드 경(Lord Passfield)은 이라크의 중요성을 수에즈 운하가 갖는 전략적, 상업적 가치에 비유하면서 1932년 이라크에 대한 위임통치가 만료되면 영국정부가 공군기지를 영구히 조차해야 된다고 말했다. 만약 영국의 군사적 존재가 이곳에서 사라지면 “결국 동양적 전체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Benedikt Stuchtey, “Not by Law but by Sentiment’, *Great Britain and Imperial Defense, 1918~1939*”, p. 262.

51) Charles Townshend, *Britain's Civil Wars, Counterinsurgenc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 Boston: Faber and Faber, 1986), pp. 93-98.



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한다는 비판”에 대해 영국 공군의 한 핵심 전략가는 “공중으로부터의 짧고 예리한 충격이 결국에는 가장 자비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며, 공군 수뇌부는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개스탄과 같은 화학무기의 투하도 심각히 고려했다.<sup>52)</sup>

1920년대 초 이라크와 그 주변지역에 토착민들의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자 진압을 위해 공군이 투입됐다. 공군은 처음에 민간인에 대한 ‘테러적인’(terrorist) 폭격을 하다가 나중에 ‘공중봉쇄’(air blockade) - 건물, 식량, 연료, 가축에 대한 폭격 - 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공중봉쇄의 개념은 영국 해군의 오래된 전략개념인 해상봉쇄의 연장선상에서 나왔으며, 영국 공군은 언제나 이 개념을 가지고 전략적 폭격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에 맞섰다. 여하튼 영국 공군은 이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sup>53)</sup> 향후 영제국의 유지와 방어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1930년대와 이차대전 중에 처칠이 그렇게 역점을 두었던 독일 도시들에 대한 공습은 중동에서 실행된 이러한 전략의 논리적 귀결인 셈이었다.

1920년대를 통해 이렇게 입지를 다진 영국공군은 1930년대 중엽이 되면 독일 위협에 대한 영국의 핵심적 군사억제력으로 부각됐다. 특히 이 정책의 중심이 된 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의 드레드노트’로 지칭된 폭격기였으며, 영국은 1936년부터 엔진 넷을 장착한 신형 폭격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이 분야를 선도했다.<sup>54)</sup> 뿐만 아니라 영국은 적의 공습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방공체계도 가장 먼저 개발해 이차대전 발발시 이미 20개의 레이더기지를 구축해 놓았다. 지상 레이더기지는 최고 40마일 밖의 적기를 탐지하여 경보를 줌으로써 적기에 대한 영국공군기의 사전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sup>55)</sup> 수상 볼드윈(Stanley Baldwin)과

52) *Ibid.*, p.98.

53) *Ibid.*, pp. 98-99. 영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의 전략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특히 *ibid.*, pp. 79-125를 참조하라.

54) ‘스털링’(Stirling), ‘헬리팩스’(Halifax), ‘랭커스터’(Lancaster)와 같은 폭격기가 이러한 신중에 속한다.

같은 영국의 정치·군사 엘리트는 영국이 피격될 수 있는 거리에 영국공군보다 더 큰 공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집했고, 전략적 폭격을 위한 첨단 폭격기의 개발과 적의 공습에 대비한 방공체계의 구축은 그러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공군은 1920년대에 군부 전체에서 가장 지출이 적은 분과였지만 1939년이 되면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됐고, 1940년 영국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생산국이었다.<sup>56)</sup>

1914년과 마찬가지로 1939년 이차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전략은 소규모 해외파견군(Expeditionary Force)을 보내 프랑스군과 공동으로 독일군에 대항해 싸우게 하고 독일의 해상봉쇄를 단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차대전에서 새롭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영국의 전략은 공군이 독일의 산업시설을 파괴하여 저항의지를 꺾는다는 전략이었다. 이른바 ‘말뿐인 전쟁’(phony war) 기간 중에 영국공군은 크게 활동하지 않았지만, 1940년 5월 독일이 서부전선을 공략하자 독일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는데, 독일이 이에 맞서 영국에 대해 공습을 시작한 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다. 영국이 이차대전에서 연합국 측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독일에 대한 대대적 공습이었다. 주요 독일 도시들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폭격은 일차대전의 서부전선에서 있었던 포격전에 맞먹을 정도로 거의 쉬지 않고 매일 계속됐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공습은 독일의 산업시설이나 군인들에 대한 피해보다는 민간인들의 대량 살상을 초래했으며, 공중폭격의 효율성을 극도로 강조한 일부 전략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루하고도 값비싼 육상전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못했다.<sup>57)</sup>

이차대전에서 영국이 취한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비해 훨씬 더 ‘자본집약적인’ 전투를 했다는 점이다. 군인 일인

55) Larry H. Addington, *The Patterns of War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p. 187; David French, “Warfare and National Defence”, p. 295.

56) R. J. Overy, *The Air War 1939~45* (London: Stein and Day, 1980), p. 150.

57) David Edgerton, “Liberal Militarism and the British State”, p. 145; David French, “Warfare and National Defence”, p. 297.

당 전투무기생산비에서 영국은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독일보다는 뚜렷하게 더 많이 지출했는데,<sup>58)</sup> 이는 영국이 독일에 대한 전략적 폭격에 힘을 많이 쏟은 사실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군의 기동성에 대한 일반적 견해도 사실과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소련의 스텝 지역을 휩쓸고, 아프리카 사막을 질주하는 기동력 있고 기계화된 독일군은 전체 유럽전의 상황에서 볼 때 결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사실, 독일군 수송의 주축은 전통적 수단인 말이었으며, 기동력을 심분 발휘한 것은 오히려 영국과 미국이었다.<sup>59)</sup>

## V. 맺음말

“오늘날의 세계화가 1914년 이전 수십년 동안의 세계경제통합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sup>60)</sup>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문제의 핵심은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상품과 노동 그리고 자본을 위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특정한 문화와 정부형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추세는, 이에 대한 도처에서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었다. 영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 있었으며, 영국정부는, 콕턴(Richard Cobden)이나 홉슨(John A. Hobson)이 바랐던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군대와 함대로써 그들의 무역로와 식민지를 지키고 확대했다. “군사력이나 여타의 인위적 노력이 아닌.....상업만이 위대한 만병통치약”이라는 콕턴의 주장은<sup>61)</sup> 격화되는 경쟁과 대

58) Mark Harrison, “Resource Mobilization for WWII”,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LI, No. 2 (1988), Table 2, p. 175.

59) R. L. DiNardo and Austin Bay, “Horse-Drawn Transport in the German Arm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23, No.1 (1988), pp. 129-130, 132, 134-135; G. D. Sheffield, “Blitzkrieg and Attrition: Land Operations in Europe”, in Colin McInnes and G. D. Sheffield (eds.), *Warfar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ory and Practice* (London: Unwin Hyman, 1988), p. 67.

60) Niall Ferguson, *Empire*, p. xix.

결 속에서 현실이기보다는 희망이 되었을 뿐이다. 영국의 교역과 경제는 제국의 틀과 이를 지탱하는 강제력과 군사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다.

영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식민지를 확보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 영국은 첨단기술을 갖춘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운용했다. 상비군에 대한 전통적 거부감이 없었더라도 대규모 육군의 양성은 인적 자원이 한정된 영국으로서 기피해야 할 군사전략이었으며, 무역과 해상지배를 통한 식민팽창은 기술을 앞세운 해군력을 바탕으로 큰 무리 없이 이뤄졌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후발산업국들, 특히 독일 해군의 도전에 대한 영국의 대응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또한 최신 전함을 건조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과정에서 영국정부와 군사산업체는 20세기를 통해 확산될 ‘군산복합체’의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일차대전의 발발은 영국으로 하여금 전략의 방향을 공군 위주로 바꾸게 했는데, 이것의 핵심인 전략적 폭격은 향후 20세기 전쟁의 주요 전략이 됐다. 드레드노트의 개발에서처럼, 첨단 항공기에 의한 폭격도 비록 초기 투자는 많더라도, 제국의 유지와 세계적 강국의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발전됐다. 신무기의 개발에 드는 엄청난 돈과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적이 당분간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 - 신무기의 독점에 대한 희망 - 은 군비경쟁의 역사에서 어김없이 좌절돼왔다. 무엇보다 핵무기 개발과 확산의 역사가 이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신무기의 확고부동하고도 영원한 독점은 지금까지 결코 없었으며, 군비경쟁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큰 위험을 사는 비이성적 게임”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sup>62)</sup>

또한 전략적 폭격이 전쟁의 승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다. 이차대전에서 유럽전을 승리로 이끈 것은 독일 도시에 대한 연합국의 폭격이 아니라 소련 적군의 진격이었고, 그 후 영국의 전통을 이은 미국이

61) *Ibid.*, pp. xviii-xiv에서 재인용.

62) Alva Myrdal, *The Game of Disarmament* (New York: Pantheon Books, 1982), p. 7.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행한 전략적 공습은, 엄청난 인적, 물적 대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승자로 만들지는 못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중동지역 전쟁에서 미국의 부차적 동반자로서 영국이 하고 있는 역할은 유럽 강국들 중 영국이 가장 호전적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영국이 추구했던 세계 지배를 위한 군사적 유산이 아직도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20세기 양차대전에서 표출된 주요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침략성과 잔혹함은 자주 지적돼왔고 또 마땅히 비판돼야 하지만, 핵심 전승국이자 한때 최대 제국을 경영한 영국의 군사적 속성과 전략적 특징은 더 철저하고 면밀한 역사적 분석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제국의 역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궁극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과연 “砲艦 없이 세계화는 가능한가?” “드레드노트 함이 F-15 전투기에 자리를 내준 것”처럼 “해외 통치의 [군사적] 기술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현실이 과거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sup>63)</sup>

---

63) Niall Ferguson, *Empire*, pp. xix, 317.

【Abstract】

## The Maintenance and Defense of a Global Empire: the Military Power and Strategy of Britain, 1880~1945

Yong Ook Jo  
(Kookmin University)

Despite the enormous scholarly attention given to the British Empire, the military power and strategy of the British state to guard and promote its imperial interests have been inadequately explored. Contrary to the wishes of the nineteenth-century liberal critics of the Empire like Cobden, Bright and Hobson, Britain mobilized and deployed a great deal of military muscle to protect its worldwide trade routes and markets. And, unlike many later commentators who have regarded Britain's military power as ineffective and outmoded, Britain consistently pursued not only superiority in military technology but novelty in military thinking and strategy. The British military in the late nineteenth and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ies is a case in point.

Faced with the mounting challenges from Germany and others in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Britain turned to high-tech weaponry to maintain its naval supremacy that had been central to its colonial success since the early modern era. The result was the rapid increase in naval armaments emphasizing technological superiority, which culmin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formidable battleship, 'Dreadnought' in 1906. By the outbreak of the Great War the Royal Navy also had the largest submarine force and the biggest air service within its arm.

The First World War brought a new element to British ways of fighting: strategic bombing. In response to the German airship (Zeppelin) attacks on Britain, the Royal Navy Air Service pioneered the strategic bombing of German cities and ports, and the Royal Air Force (RAF) was created by early 1918. The 1920s was a critical period when the independence of the RAF was greatly disturbed by the Army and the Navy who wanted the RAF to be disbanded. The danger was removed mainly by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When the people in

such newly 'mandated' territories as Mesopotamia (Iraq), Transjordan and Palestine revolted against the British rule, the use of aircraft in strategic bombing was put into effect as a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way to terrorize and suppress those rebellious in such sparsely populated regions.

In the 1930s the RAF became the main weapon against Germany, and not the fighter but the bomber-'the dreadnought of the air'-became the backbone of Britain's aeronautical strategy. By 1939 the RAF was the biggest spender of all military services, whereas it had been the lowest in the 1920s. The intense strategic air offensive of Britain (and Allied powers) against German cities and civilians during WWII was in a sense a logical conclusion to this pre-war development. The technologically-oriented military buildup and the policy of strategic bombing that Britain had persistently pursued became important historical legacies that the US has inherit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 핵심어 (Key Words)

영제국(The British Empire), 제국방어 (imperial defence), 군사기술 (military technology), 해군우위 (naval supremacy), 전략적 폭격 (strategic bombing)